

마가복음(12) 2:13-17

- 막2:13-14,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알패오의 아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떠한 제자였습니까?

- 마태9: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 막3:16-19,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19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2.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알패오의 아들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직업을 가진 자들은 당시에 어떤 자들로 취급을 받았습니까?
3. 알패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자 그가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4.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 요12: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 막2: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5.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삶이 오늘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눅22:29-30,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6.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나라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 사25:6-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7.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나누는 것을 보며 비방하고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막2: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 눅5:30,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 막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 눅5: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8.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 눅18:9-14,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 마태21:31b-32,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 딤편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9.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까?

- 롬7: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 롬7:24-25,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10. 우리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섬기며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까?